

# 문법화론과 한국어언어학\*

이 성 하  
(한국외국어대학교)

Rhee, Seongha. 1999. Grammaticalization Theories and Linguistic Research in Korean.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16, 427-458. This paper presents a brief exposition on the current grammaticalization theories and makes a suggestion for the research directions in the Korean linguistics. Remarkable advances have been made in the linguistic investigations since the advent of this new theoretical framework. A major achievement of the grammaticalization theory is that it provided a panchronic perspective and a concern for the cross-linguistic validity, thus broadening the scope of data both in time and in space. The strengths of this new framework, some important concepts as research tools, and various mechanisms of grammaticalization are presented, and some research directions in Korean linguistics from this new linguistic perspective are suggeste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1. 들머리

언어의 현상과 본질을 규명해 보려는 노력은 언어의 역사만큼이나 길다고 하겠다. 이러한 규명 노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에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이론은 특정한 연구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방법론 중의 하나인 문법화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이론을 한국어언어학의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언어학의 역사에서 보면 언어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그 동안의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공시적 연구방법이나 통시적 연구방법 중 하나에 충실하게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30여 년 동안 급격한 속도로 언어학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 문법화론은 공시적 시각과 통시적 시각을 통합하여 이른바 범시적 시각으로 언어자료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언어변화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들이 범언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개별언어의 분석에도 충

---

\* 이 글은 1999년 8월 21일 개최된 언어과학회 99년도 하계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의 특강에 기초한 것이다. 학회에서 여러 가지 제언과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실하지만 그러한 분석이 범언어적인 변화의 양상에 비추어 얼마만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이른바 범언어적 타당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법화론은 그 연구대상의 지평을 시간차원과 공간차원에서 크게 넓힘으로써 언어현상을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는 점이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법화론의 정의와 이론적 장점을 소개하고 (§2), 이 이론의 주요한 개념들인 문법화 원리들을 소개하며 (§3), 문법화가 생겨나는 몇 가지의 기제들을 제시하고 (§4), 한국어언어학에서의 문법화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 보고자 한다 (§5).

## 2. 문법화론의 정의와 특징

언어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 (1) a. 한국어: 이제 서울에 다 와간다.
- b. 영어: He is going to come.

위의 예 (1)에서 보면 ‘가다’라는 이동동사가 물리적인 이동의 뜻이 없이 진행의 뜻이나 미래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동동사가 시제나 상의 표지로 쓰이는 예는 전세계의 언어들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의미상 반의어인 ‘오다’와 ‘가다’가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다음의 예도 유사한 경우이다.

- (2) a. 한국어: 그 사람은 하루종일 공만 차고 앉아있다.
- b. Telugu: ame iLati vedhava pani cesi-kurcondi  
she such bad work do.Pst-sat  
‘그여자는 그렇게 나쁜짓을 했다.’ (원 뜻: 하고앉았다)  
(Arun 1992: 99)

위의 예 (2)에서 보면 ‘앉다’라는 동작동사가 말하는 이의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표지로 쓰이고 있다. 이 예문에서 ‘앉다’가 문자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같이 쓰인 동사들의 의미가 ‘앉다’라는 의미와는 공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 문장들에서는 비록 화자가 문장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화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 즉 명제에 대한 불쾌감이 표시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들은 매우 많은 언어에서 나타난다. 즉 ‘가다’ > [미래시제표지], ‘앉다’ > [부정적 견해표지] 등과 같이, 원래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들에 차츰 그 의미를 잃고 시제나 상, 양태, 서법과 같은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단어로 바뀌어 가는 현상이 범언어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처럼 의미적으로 완전한 단어들 즉 내용어 또는 어휘어

라 불리는 단어로부터, 별 의미가 없이 문법기능만을 주로 담당하는 단어 들 즉 기능어로 바뀌어 가는 변화를 문법화라 한다.

원래 문법화론은 19세기의 비교역사언어학의 줄기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문법화론의 창시자라 불리는 Antoine Meillet 를 비롯한 많은 문법화론 학자들에 의해 급속도로 학문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문법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Meillet는 문법화를 ‘완전한 자립적 단어에 문법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라 하였다. 현대 문법화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는 다음에 제시된 Kuryłowicz(1975 [1965]:52)의 것이다.

- (3)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것이다.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문법화론은 어떤 문법소의 단회적인 변화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법을 향해 가고 있는 어휘들의 행진을 그 시작점과 그 모든 여정과 그리고 그 종착점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다.

언어학 이론으로서의 문법화론은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독자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 a. 거시적, 언어현상의 총체적 분석  
b. 독립적 증거에 의한 높은 설명력  
c. 언어변화의 동기 설명  
d. 하위분야 설정의 경직성 탈피  
e. 범언어적 타당성 추구  
f. 범시적 시각

이들 각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문법화론은 언어의 관찰 대상을 공시나 통시처럼 인위적으로 나눈 부분적인 언어자료가 아니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 문화, 언어 사용자의 인지 작용이나 언어습득 등과 같은 포괄적인 측면들을 모두 관찰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단순히 언어 자체만이 아니라 언어현상과 관련된 총체적인 요소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언어를 더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문법화론은 모든 학문적 이론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명력은 이론내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론외적으로 ‘독립적인 증거’를 통해 언어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그 동안의 언어 변화 이론들이 현상의 기술에 치중하여 언어 변화의 핵심이 되는 ‘동기’에 대하여는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문법

화론에서는 언어 변화의 주체를 언어가 아니라 사람으로 봄으로써 언어 변화의 동기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문법화론은 문법을 몇 가지의 독립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 분야들이 서로 연쇄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그 동안 문법의 하위 분야들 간의 경계설정에 대한 부자연스럽고 경직된 학문적 동향에 혁신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다섯째, 문법화론은 언어 변화에 나타난 인간의 인지적 전략을 연구하는데에 큰 관심을 가짐으로써 개별언어에서 고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언어 현상들 뿐 아니라 범언어적인 시각에서 언어 현상을 기술하려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은 설명을 제시한다.

여섯째, 문법화론이 가지는 이른바 범시적 시각은, 공시언어학에서 언어의 역사성을 무시함으로써 생겨나는 한계와, 통시언어학에서 언어의 공시적 현상을 간과함으로써 생겨나는 한계를 모두 극복한다. 따라서 공시적인 언어 현상의 외형적인 불규칙성을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으로부터 설명하여 주고,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언어의 연구에서도 공시적인 현상을 토대로 역사적 형태에 대한 귀류적인 재구가 가능하게 하여 준다.

위의 여러 가지 장점들에서 알 수 있듯이 문법화론의 시각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며 문법화적 분석은 언어 현상에 대해 높은 설명력과 타당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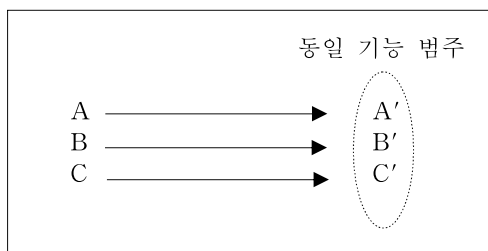
### 3. 문법화의 원리

이 절에서는 문법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1 층위화

층위화(layering)란 Hopper (1991), Hopper & Traugott (1993)에서 제시한 것으로,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러 문법화소들이 같은 기능의 영역 안에서 자꾸 문법화되지만, 옛 층위는 새 층위가 생겨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 형태와 새 형태가 공시적으로 공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할 수 있다.

(6)



위의 도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원에서 출발하여 문법화한 문법소들이 공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능 범주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는 현대 영어에서 시상태표지라는 동일한 기능 범주 안에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층위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 |        |               |                      |
|--------|---------------|----------------------|
| (7) a. | 동사 어간 모음 변화   | take/took            |
| b.     | 치경음 집사        | look/looked          |
| c.     | 서법 조동사        | will take/shall take |
| d.     | have V-en     | has taken            |
| e.     | be V-ing      | is taking            |
| f.     | keep on V-ing | kept on eating       |
| g.     | keep V-ing    | kept eating          |
| h.     | be going to V | is going to take     |

현대 한국어에도 층위화의 많은 예들이 나타난다. 한 예로 ‘-고 있-’으로 대표되는 진행상 표지의 층위화를 들 수 있다.

- |        |                      |
|--------|----------------------|
| (8) a. | 철수가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
| b.     | 철수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중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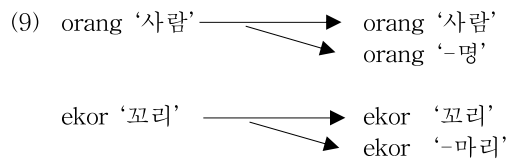
위의 예에서는 ‘-고 있-’과 ‘-고 있는 중이다-’이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진행상을 표시하고 있다. 원래 현대 한국어에서의 진행을 표시하는 ‘-고 있-’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문법형태이다. 그러나 이 형태가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들에서처럼 진행적인 진행표지로 사용되다가 ‘안경을 쓰고 있다’(상태)나 ‘알고 있다’(인지작용) 등과 함께 쓰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점차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고 있는 중이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행형이 새 층위로 등장하게 되어 공시적으로 현대 한국어에는 이들 두 형태가 층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3.2 분화

분화(divergence)란 때로 분리(split; Heine & Reh 1984)라고도 불리는데,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여러 형태의 문법소들이 의미·기능상 나누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 언어형태가 문법소로 변해갈 때,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점점 굳어져 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 새로운 의미를 얻어가게 되고 형태도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경과하면 이 특정한 위치에서 쓰이는 단어는 다른 위치에서 쓰이는 동일한 단어와 의미, 형태, 기능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수사 *one*과 관사 *a/an*은 고대 영어에서 같은 단어인 *an* ‘하나, 어떤’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어휘가 되어 있다.

다음의 Malay어의 예에서도 분화에 의해 명사와 분류사가 나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분화 현상은 한국어의 분류사들에서도 나타난다. ‘사람’, ‘그릇’과 같은 단어들은 완전한 명사로 쓰이는 원래의 용법과 계수를 할 때 분류사로 쓰이는 문법화된 용법이 있어서 분화의 예이고, 완전한 명사인 ‘머리’도 동물을 셀 때 쓰이는 ‘마리’와 분화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명’, ‘대’, ‘그루’, ‘개’ 등은 분류사이기는 하지만 공시적으로는 대립어가 없어 분화의 예로 볼 수 없다.

### 3.3 전문화

전문화(specialization)란 한 문법소가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다. 층위화 현상에서 보듯이 공시적으로 어떤 기능 범주 안에는 대개 여러 문법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존상태에서 각 문법소는 끊임없이 해당 문법 기능표지로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데, 그 중 한 문법소의 의미가 확장되어 다른 경쟁자들을 몰리치고 해당 문법 기능을 전담하는 문법소로 변화하는 것을 전문화라 하는 것이다. 대개 전문화와 층위화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화의 가장 흥미로운 예는 프랑스어의 부정극어(否定極語)의 경우이다.

(10) 프랑스어의 부정극어 (Hopper & Traugott 1993:113ff에서 발췌)

16세기 이전:	pas(발짝), point(점), mie(부스러기), gote(방울), amende(아몬드), arestem(생선뼈), beloce(자두), eschalope(콩깍지)...
16세기:	pas, point, mie, goutte
현대:	pas, point

위의 예에서 보면 16세기 이전에는 부정격어로 많은 단어들이 있었지만 차츰 그 숫자가 줄어들어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pas*와 *point* 둘만 남았는데 이 중에서도 *pas*가 더 주도적으로 쓰인다. 심지어는 *pas*가 부정어 *ne* 없이도 완전한 부정어처럼 쓰이기도 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전문화의 예는 많이 있는데 그 중 부사형 어미의 전문화 현상을 살펴보면, 1517년 어간에 간행된 번역노걸대에서는 부사형 어미 ‘-게’가 6번만 쓰인데 반해 동일한 내용을 현대국어로 번역한 1995년의 역주번역노걸대에서는 102번이나 사용되었다. 이것은 부사형어미가 ‘-이’와 ‘-게’가 공존하면서 층위화를 이루고 있다가 차츰 ‘-이’가 그 역할을 ‘-게’에게 빼앗기고 ‘-게’가 부사형어미로서의 역할을 차지하게 된 전문화현상을 보여준다(이성하 1996:111-112).

### 3.4 의미지속성

의미지속성(persistence)이란 문법소가 어원어의 의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법소는 그 어원적인 언어형태로부터 차츰 문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의미도 변화하고 음운형태도 변화한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거친 후에도 원래 어원어의 의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의미지속성이라 부른다. 문법화에 있어서 의미지속성이란 개념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미지속 효과 때문에 이 새로운 문법소가 공기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는 Malay어의 분류사 *suatu*를 들 수 있다. 분류사 *suatu*는 그 안에 어원적으로 ‘하나’라는 수사 *sa*가 들어 있어서 현대 Malay에서도 그 분류사 앞에 ‘하나’라는 수사가 나올 수도 없고 복수표시의 수사가 나올 수도 없다. 즉 원래 ‘하나’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그 의미지속성에 의해, 의미중복이 일어나서 ‘하나’라는 수사가 나올 수 없고, 의미 충돌이 일어나서 복수표시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지속성의 흥미로운 예는 한국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11) a. 그는 이 집을 팔아 치웠다 (\*사 치웠다).  
 b. 그는 개집을 만들어 치웠다 (\*기와집을 지어 치웠다).  
 c. 그 녀석이 밥을 먹어 치웠다  
 (\*아버지께서 진지를 먹어 치우셨다). (김성화 1990)

위의 예에서 보듯이 보조동사 ‘치우다’는 매우 미묘한 공기제약을 가지고 있다.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이와 유사한 보조동사 ‘버리다’는 위의 모든 예문에서 ‘치우다’를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기제약은 ‘치우다’가 품격이 낮은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와만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화 1990). 이성하(1996)에 따르면 이러한 공기제약은 역사적인 배경 즉 의미지속성의 결과이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중세와 초기 근대 한국어 자료를 보면 ‘치우다’가 보조동사로 사용된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단어가 본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분노를 퍼서 밭에 갖다 버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쓰레기나 우물 속의 오물을 퍼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뜻이었다. 분노를 치우는 행위

는 그 성격상 섬세하지 않으며 행위자도 그런 행위에 공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 급히 일을 끝내려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어원어의 의미는 그로부터 발전한 보조동사의 의미에 아직도 영향이 남아 있어서, 공시적으로 현대 한국어 사용자들이 비록 그 역사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단어의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즉 ‘파는’ 행위는 ‘사는’ 행위보다 덜 공을 들일 수 있고, ‘개집’을 만드는 행위는 ‘기와집’을 만드는 행위보다 덜 섬세하기 때문에 보조동사 ‘치우다’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어른의 행위를 품격이 낮게 취급하는 것은 대우법상 어긋나기 때문에 ‘치우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의미지속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시점에서는 의미가 소멸하여 그러한 공기제약이 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미래성표지인 ‘겠’이 추정성표지로 변하면서 과거시제표지와도 공기할 수 있게 되어 현대한국어에서는 ‘아꼈겠다’가 가능해졌다.

### 3.5 탈범주화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란 어원어들이 문법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명사, 동사와 같은 일차적 문법범주의 특성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형용사, 부사, 전치사, 후치사 등과 같은 이차적 문법범주의 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부차적인 범주로의 변화를 탈범주화라 부른다. 문법화의 변이는 범주상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연속 변이를 거친다.

(12) 명사/동사>>형용사/부사>>부치사/접속사/조동사/대명사/지시사...

문법적인 범주의 변이 방향이 위와 같이 단일방향적이라면 모든 이차적 문법범주는 일차적 문법범주에서 기원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향성은 문법화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이것을 단일방향성 가설이라고도 한다.

영어에서 탈범주화의 예로는 다음 *considering*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13) a. {Carefully considering, Having carefully considered} all the evidence, the panel delivered its verdict.  
 b. {Considering, \*Having carefully considered} you are so short, your skill at basketball is unexpected. (Hopper & Traugott 1993:105)

위의 예(a)에서 보면 *considering*은 부사의 수식을 받기도 하고 완료구문을 가질 수도 있고 분사구문에서 규칙으로 삼는 주절 주어와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의 일치도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considering*이 동사적 성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b)에서 보면 이들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considering*은 원래 일차범주인 동사로부터 이차범주인 접속사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탈범주화의 예는 많이 들 수 있다. 특히 동사에서 유래한 많은 보조동사들이 화석화되어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상태 변화에



많은 제약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다.

- (14) a. 애들이 떠들고 앉았다.  
b. 사과를 왜 꺾고 자빠졌니? (a,b: 김기혁 1995:453-454)  
c. 애들이 떠들고 {앉았다, \*앉는다, \*앉겠다, \*앉는 중이다, \*앉아라, \*앉을 것이다...}  
d. 사과를 왜 꺾고 {자빠졌니?, \*자빠지니?, \*자빠지겠니? \*자빠지는 중이니?, \*자빠질 것이니?...}

위의 예에서 보듯이 ‘-고 앉았-’과 ‘-고 자빠졌-’은 시상태의 제약 때문에 화석화된 구문 이외에는 어미와의 결합이 매우 제약적이다. 원래 동사로 쓰일 때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으나 조동사로 변화하면서는 통사적인 제약을 가지게 된 것이다.

#### 4. 문법화의 기제

문법화의 연구에 있어서 문법화의 기제 즉 문법화가 어떠한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항이다.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기제들로는 은유, 유추, 환유, 재분석, 화용적 추론, 조화, 일반화, 흡수 등이 있는데 이들 각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문법화의 기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먼저 두 가지 사항을 전제하여야 한다. 첫째, 이 기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문법화를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기제들 중의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혹은 단계별로 작용하면서 문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문법화 기제가 모든 문법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둘째, 문법화의 기제들은 서로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용어들이 정의하는 영역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동일한 변화가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기제에 의한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 4.1 은유

은유(metaphor)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다른 종류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의 전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Lakoff & Johnson 1980; Claudi & Heine 1986, *inter alia*). 은유가 문법화와 가지는 관계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많이 있다. 특히 Matisoff(1991)와 같은 학자는 문법화가 은유의 하위형태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목할 만한 연구로는 Sweetser(1990)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Talmy(1981, 1988)에서 제시된 ‘힘의 역학(force dynamics)’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물리적인 현상에 있어서의 역학 관계가 사회적인 역학관계, 더 나아가 인간의 지식세계에 있어서의 인식적 역학 관계로 전이되는 현상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 (15) a. The crack in the stone let the water flow through. (물리적)
- b. I begged Mary to let me have another cookie. (사회적)
- c. You must finish your homework. (사회적)
- d. You must have been home last night. (인식적)

위의 예문에 나타난 *let*과 *must*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은 개념 영역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6) [let]

- a. 물리적 장애의 제거: 돌에 생긴 틈에 의하여 물의 흐름을 제약하는 장애가 없어짐.
- b. 사회적 제한의 제거: Mary의 허락에 의하여 내가 쿠키를 더 먹을 수 없는 사회 상황적 장애가 없어짐.

[must]

- c. 실제 세계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할 당위성: 화자의 권위나 직접적인 힘이 너로 하여금 숙제를 끝내는 일이 일어나도록 강제성을 부과함.
- d. 인식 세계에서 한 명제가 사실이어야 할 당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네가 어젯밤 집에 있었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논리적인 강제성을 부과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념들의 영역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은유에 의한 변화가 되는 것이다. Sweetser(1990)는 이러한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 의미 전이는 바로 우리의 정신 세계가 외부의 물리적인 세계와 평행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의 정신 세계 자체가 은유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변화들은 중요한 은유적 변화라고는 하지만 어휘적 의미의 확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의미변화 자체는 문법화라 할 수는 없다.

문법화의 기제로 사용되는 은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는 시공간표지의 발달을 포함하는 이른바 존재론적 범주의 변화를 지적한 Heine *et al.* (1991a,b)의 연구이다. 여기서는 범주들의 이동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7) 사람 > 물체 > 행위 > 공간 > 시간 > 질

Lichtenberk(1991)는 ‘오다’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신체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본동사로 쓰이는 이외에도, 공간적 개념과 관계된 여러 가지 처소격, 유래격 표지들로 변화하고, 미래시제나 지속상과 같은 시간적 개념으로 변화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수동문의 행위자표지나 비교급문장의 비교대상표지 등으로까지 변화한 예를 보였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가다’의 뜻을 가진 단어들도, 공간적인 개념과 관계된 여러 가지 처소격, 향격 등으로 문법화하고, 시간적 개념과 관계된 과거시제, 미래시제 표지들이나 시간적 원격

표지, 지속상표지 등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조건절 표지나, 순서표지들로 문법화한 예를 들고 있다.

이와 매우 유사하게 이성하(1996)에서는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가다’와 ‘오다’가 지속상, 상태변화상표지로 발전한 예를 보이고 있다.

- (18) a. 전쟁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다.
- b. 환율이 점점 올라간다.
- c. 목적지에 다 와간다.
- d. 우리는 5년동안 감자만 먹어왔다.
- e. 그 정신병자가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 f. 열병환자의 체온이 내려온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신체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이동동사들이 시간적인 지속이나 상태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문법표지들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법표지는 시간·상황적 이동이라는 객관적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 화자의 주관적인 가치평가를 표시한다. 따라서 가치평가상 바람직한 것은 ‘오다’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가다’로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유추

일반적으로 말해 유추(analogy)란 어떤 언어 형태가 의미나 기능, 음성적으로 비슷한 언어 형태에 동화하여 변하거나 또는 그런 형태가 새로 생겨나도록 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변칙적인 것들을 규칙적인 것들로 바꾸는 과정이다. 규칙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사성에 기초한 일관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사성은 형태성의 유사성이 될 수도 있고, 기능상의 유사성이 될 수도 있다.

유추의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영어의 복수표지의 변화이다. 고대영어에서는 장모음을 가진 단음절 중성명사의 경우에는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이었다. 이러한 형태들은 더 흔한 복수형이었던 *-s* 형태로부터 유추되어 모두 *-s*형으로 통일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에 있어서 역성법(back-formation)에도 유추의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beggar*, *editor*라는 단어에 있는 *-ar*, *-or*을 사람을 나타내는 파생접미사로 생각하여 역으로 *beg*, *edit*라는 동사를 만들어 낸 것이라든가, *television*에서의 *-ion*을 파생접미사로 생각하여 *televise*란 동사를 만들어 낸 것들도 또한 유추에 의한 것이다.

문법화론 학자들 가운데 유추를 문법화의 핵심 기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Givón은 “음운상이나, 형태-통사적이거나, 의미론적이거나, 담화화용이나, 언어에 있어서 거의 모든 창조적인 통시적 변화들은 유추적인 변화”라고 주장한 바 있고 (Givón 1991), Matisoff(1991)도 “모든 문법화 현상은 유추를 포함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Heine *et al.* (1991a)은 “유추란 은

유적 전이와 문법화적 과정에 있어서의 원인으로가 아니라 단지 관계로서 보아야 하며, 유추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유추는 어떤 변화현상을 기술할 뿐이지 그 자체가 기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유추가 문법화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Heine & Reh(1984)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유추는 의미역 요인, 언어별로 선호되는 어순, 동사의 견인과 더불어 어순변화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유추가 형태-통사적인 변화에서 어순 변화에 관여한다는 것은 Dik(1978)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Dik(1978)에 따르면 유추는, 기능상의 특징이 같은 문장 성분을 문장 구조상의 위치가 같은 곳에 배치하는 데 사용하는 심리적인 언어 전략이다. 즉 유추는 기능과 위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유추는 흔히 단순화의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추적 평준화 (Lehmann 1963), 또는 계열적 유추 (Heine & Reh 1984)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추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은유와의 관련성이다. 은유란 발화와 의도, 즉 말한 것과 의도된 의미간의 유추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은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은유는 개념의 전이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유추란 영역의 변화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 4.3 환유

환유(metonymy)란 ‘어떤 방식으로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이용해 그 연속성 있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쓰는 수사법의 일종’이다 (Taylor 1989; Heine *et al.* 1991a). 즉 환유는 그것과 ‘연속성’을 가진 대상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언어전략이다. 이러한 연속성은 Traugott & König (1991)의 분류를 따르면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9) a. 사회-물리적, 사회-문화적 경험상의 연속성
- b. 제유 즉, 부분-전체 관계의 연속성
- c. 병치 관계, 즉 발화상의 연속성

위의 (a)에 해당하는 연속성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언어에서 많이 쓰이는 수사상의 전략이다. 국회의사당이 국회의를, 청와대가 대통령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이 밖에도 인장이 사람을, 저자가 저작물을, 차량이 운전자를 나타내는 것들도 일종의 사회-문화, 사회-물리적인 연속성에 의한 것이다. (b)에 해당하는 연속성은 얼굴이나 손이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c)에 해당하는 연속성은 문법화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므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문법적 개념 중에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소유의 개념을 표시하는 문법 표지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도식에 기초하고 있다.

- (20) a. X가 Y를 취하다                    행위도식  
       b. Y가 X에 있다                    장소도식  
       c. X가 Y와 있다                   동반도식  
       d. X가 Y에 관련해 존재한다   존재도식

위의 도식들과 소유의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a)에서는 X가 Y를 취하는 행위로부터 그러한 행위와 인접한 개념인 소유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즉 ‘취하는 행위’가 ‘소유하는 상태’와 인접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영어에서 *have*가 *have a seat*에서처럼 ‘취하는 행위’를 나타내면서도 광범위하게 소유의 뜻을 나타내고, 스페인어의 *tener*도 ‘take’와 ‘have’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장소나 동반이나 존재의 개념들도 그것이 어떤 사물의 존재 양식 혹은 존재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그 존재상황과 인접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의 소유적 관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환유의 예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철수에게’라고 할 때 ‘-에게’는 원래 장소적인 의미로서 ‘철수 거기에’라는 의미를 가진 구조에서 발달한 것이다. 이것은 두 사물의 처소적 인접성에 입각한 환유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들은 실제 세계에서의 장소적 인접성으로부터 환유에 의해 문법 표지가 발전된 경우이다. 인접성은 실제 세계에서 뿐 아니라 추상적인 세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인접성에 의해서도 문법 표지가 발달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살펴 보자.

영어의 *go*는 미래시제표지로 사용되어 *be going to*, *be gonna* 등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Hopper & Traugott (1993)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 발달을 [이동동사 > 미래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물리적 세계 > 문법 개념 세계]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변화를 두 영역을 가로질러 나타난 은유라고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변화에 작용한 환유의 역할이다. 영어의 *go*가 모든 문맥에서 미래표지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오직 *be going to*만이 그렇게 발전했고 또한 *to* 다음에도 반드시 동사가 나오는 구문에만 해당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to* 이하의 부사구가 원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어떤 발화를 들으면서 그 표면적인 명제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진의, 상황적 영향 등에 대하여 다양한 추론을 하게 된다. 따라서 *I am going to be married* 라는 명제를 듣게 되면 청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한 의도 즉 ‘결혼행위’가 잘 이루어졌다고 추론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be going to*는 *go* 동사로부터의 미래지향성과 *to* 부사구문으로부터의 의도성이 결합함으로써 본격적인 미래표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즉 *be going to*의 미래표지로의 변화는 언어 사용자들의 심리상의 인접성에 기초한 환유적 문법화의 한 예이다.

#### 4.4 재분석

재분석(reanalysis)이란 어떤 표현 형식의 변화에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어떤 직접적이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다(Langacker 1977). 다시 말하면 재분석이란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형태의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외형상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Traugott(1980)에서는 언어 형태의 구조적인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Myhill(1988)에서는 재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C. Lehmann(1991)에서는 재분석이, 기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분석을 유추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분석의 예는 단어 형성에 있어서 합성어를 만드는 융합 현상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 영어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는 접사에 의한 파생은 원래 합성어로 출발한 것이었다.

- (21) a. cild-had 'condition of a child' > childhood  
 b. freo-dom 'realm of freedom' > freedom  
 c. man-lic 'body/likeness of a man' > manly  
 (Hopper & Traugott 1993: 41)

위의 예에서 보듯이 접사 *-hood*, *-dom*, *-ly* 등은 원래 완전한 명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조상의 경계가 다시 분석되었다.

- (22) [[cild] [had]] >> [childhood]

또한 흔히 문법화의 예로 꼽히는 *be going to V*의 경우에도 재분석을 간략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3) [[be going] [to V]] >> [[be going to [V]]]

즉 위에서 보면 *go*가 원래는 본동사로 파악되던 것이 *V*가 본동사로 파악되는 재분석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영어의 *may*, *can*, *must*, *do* 등과 같은 서법 조동사들은 종래에는 다른 많은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본동사였으나 이들이 서법 조동사로 재분석함으로써 생겨나게 된 것이다.

재분석의 예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라틴어계에서 *have* 동사가 미래형 표지로 발달하게 된 경우이다. 라틴어에서는 원래 굴절로 미래형을 표시했었으나 이러한 형식은 후에 다음 예에서와 같이 *habere* 동사와 동사의 부정사형이 결합한 형식에 의해 대체되었다.

- (24) Haec habeo cantare  
 these have.1.Sg.Pres sing.Inf  
 'I have these things to sing.'

위의 예에서 쓰인 *habere* 동사는 '소유'나 '존재' 개념을 표시하는 동사였

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동사가 일종의 의무의 뜻을 지니게 되거나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habere*는 결국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문은 라틴어의 자유로운 어순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쓰이기도 하였다.

(25) Haec cantare habeo  
 these sing.Inf have.1.Sg.Pres

그런데 [[cantare] habeo]의 구조가 의무나 미래 지향성을 보이는 문맥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언어사용자들이 이 구문을 그 기저에 두 개의 절이 있다고 보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여 [cantare habeo]로 파악하게 되었다. 즉 재분석을 통해 절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재분석을 거친 후 형태소 경계가 무너지고 음운적 소실이 일어난 등 일련의 변화를 거쳤으며, 의미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성으로부터 미래로의 재분석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원래의 *habere* 구문은 미래 표지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6) 고대 라틴어 [[cantare] habeo] >>  
 후기 라틴어 [cantare habeo] >>  
 프랑스어 [chant-e-r-ai]

#### 4.5 화용적 추론

화용적 추론(pragmatic inference)이란 대화 상황으로부터 언어사용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주로 귀류적인 추론을 이용한다. 귀류적 추론이란 결론나 규칙으로부터 경우를 추론해 내거나, 결과로부터 경우나 규칙을 추론해 내는 논리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귀류적 추론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연역적 추론이나 귀납적 추론과 다른 점은, 연역적 추론은 'x가 사실이어야 한다', 귀납적 추론은 '시험을 해 보니 x가 실제로 사실이다', 그리고 귀류적 추론은 'x가 사실일지 모른다'라는 것이다(Anttila 1972). Andersen(1973)은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문화 패턴을 형성하는 데에 귀류적 추론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사실상 Hopper & Traugott(1993)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귀류적 추론에 의해 재분석이 일어나고 이것에 의해 문법화가 발생한다.

추론이 문법화에서 가지는 대표적인 특성은 문법소의 의미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한 어휘소나 문법소가 본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래의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 청자는 이와 같이 암시된 의미가 그 언어 형태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와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암시적 의미가 마침내 실제 의미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과정을 함축의 관습화, 혹은 함축의 규약화라고 부른다. 이것은 화용적 강화 (Traugott 1989)나 문맥적 재해석 (Heine *et al.* 1991)과 같은 개념이다. 이성하(1996)

에 따르면 추론에 의한 의미 첨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미추가 (semanticization)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추론이나 함축의 관습화를 문법화의 기제로 본 연구들은 많이 있는데 특히 Dahl(1985), Bybee(1988), König(1988), Traugott(1989), Traugott & König(1991), Faltz(1989), Heine *et al.*(1991a,b)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추론이 기계적으로 문법화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추론이란 인간의 인지 활동으로서 문맥과 상황, 개인적인 지식, 관련된 가정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이 관습화되는 데에는 사용빈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 형태의 사용과 관련해서 언어 사용자가 추론을 할 경우에 그 해당 어휘나 문구가 아주 드물게 쓰였다면 그러한 추론의 강도를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고립적인 경우가 되고 말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러한 언어 형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면 추론이 점점 강화되어서 결국은 의미의 일부로서 편입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 현상이나 혹은 어휘적 변화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추론의 관습화에 의한 의미 변화는 비교적 서서히 발생한다.

추론의 관습화가 실제 문법화에서 일어나는 예들로는 다음과 같은 한국어의 행위동사중의 ‘두다’, ‘놓다’, ‘넣다’ 등 배치동사(placement verb)들을 들 수 있다.

- (27) a. 그는 점심을 든든히 먹어 두었다.
- b. 그는 문제를 풀어 놓았다.

위의 예들에서는 원래 어떤 사물을 어떤 장소에 배치하는 의미를 가지던 ‘두다’와 ‘놓다’가 다른 동사와 연계동사 구문에서 쓰이면서 어떤 행위가 완료됨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미래에 대한 대비 행위였음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다음과 같은 추론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 (28) 제 1단계: A가 B를 C에 두었다.
- 제 2단계: A의 행위는 동기가 있었으며 따라서 목적이 있었다.
- 제 3단계: 행위의 결과는 A가 의도한 것이며 따라서 결과는 바람직한 것이었다.
- 제 4단계: A는 그 바람직한 결과적 상태를 유지 보존하기를 원한다.
- 제 5단계: A는 결과적 상태를 유지 보존한다.

또한 한국어에는 ‘버리다’, ‘치우다’ 등의 제거동사(displacement verb)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버리다’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추론의 관습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29) a. 그가 그녀의 밥을 먹어 버렸다.
- b. 그는 원래의 계획을 포기해 버렸다.



위의 예들에서는 ‘버리다’가 완료적인 상을 표시해 줄 뿐 아니라 해당행위에 대한 화자의 가치 평가, 즉 해당행위가 다시 환원불가능함, 바람직하지 않음, 악의성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면 예문 (a)는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 (30) a. 그가 그녀의 밥을 완전히 먹어 없었다.
- b. 그가 그녀의 밥을 먹어서 없어진 밥을 돌이킬 수가 없다.
- c. 그가 그녀의 밥을 먹은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다.
- d. 그가 그녀의 밥을 먹어서 그녀에게 손해를 입혔다.

위와 같이 다양한 부가적 의미들은 화용적 추론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다. 이 화용적 추론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 (31) [x가 y해 버렸다]
- 환경: y는 끝점이 있는 종결동사(telic verb)이고 같이 나타나는 ‘버리다’도 종결성(telicity)이 강한 동사이다.
- 제 1단계: 사건 y는 완전하게 일어났다.
- 제 2단계: 사건 y는 돌이킬 수 없다.
- 제 3단계: 사건 y는 바람직하지 않다.
- 제 4단계: x는 y를 의도했고 이것은 악의적이다.

Bybee *et al.*(1994)에서 논의한 영어의 서법 조동사 *should*의 문법화를 통해 추론에 의한 문법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영어의 *should*는 현재, 과거, 미래의 개연성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인식적 서법 동사로서의 용법에는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연성 표시 기능뿐만 아니라 의무성 표시 기능도 있다.

- (32) a. The letter should arrive sometime next week. (미래)
- b. The letter should be in the mail. (현재)
- c. The letter should have come last week. (과거)

위의 예에서는 개연성과 의무성이 둘 다 가능한데 개연성만이 가능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의무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해야 하고 그런 방법 중의 하나는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가주어 *it*을 사용하는 것이다.

- (33) It should take me about four hours to get there.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 의무성은 개연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의무성이 개연성을 함축하고 있다가 의미상 의무성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연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의 의무성을 나타내는 용법은 최근에 발전한 용법인데, 이것으로부터 인식적 용법 즉 개연성의 용법이 나온 것으로 보아, 현재의 개연성 용법은 더욱 최근의 용법인 것 같다. 따라서 의무성에서 개연성이 함축되고 이것이 점점 더 관습화되어 인식적 서법으로 발달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34) 의무성 > 의무성 > 의무성 > 개연성  
(+개연성의 함축) (+개연성의 관습화) (+의무성)

Traugott(1989), Traugott & König(1991), Bybee(1988)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행위자 중심의 서법에서 인식적 서법으로 발전하는 데에 함축의 관습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Traugott & König(1991:194-195)에서 소개하는 영어의 접속사 *since*의 문법화는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축의 관습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이다.

- (35) a. I have done quite a bit of writing since we last met.  
b. Since Susan left him, John has been very miserable.  
c. Since you are not coming with me, I will have to go alone.  
(Bybee *et al.* 1994:197)

원래의 접속사 *since*는 위의 예 (a)에서와 같이 'time after'의 뜻으로만 쓰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가지의 시간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인과적으로 연결되었다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접속의 의미를 갖는 *since*가 차츰 원인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예문 (b)는 'Susan이 떠난 이후'와 'Susan이 떠났기 때문에'의 두 가지의 의미가 다 가능하게 되었다. 두 의미중의 선택은 물론 문맥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론이 완전히 관습화되어 *since*의 의미로 편입됨으로써 현대 영어에서와 같이, 원인의 의미로만 사용될 수 있는 (c)와 같은 구문도 *since*로 연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법화상의 의미변화는 모두 화용적 추론에 의한 것이다.

#### 4.6 일반화

일반화(generalization)란 어휘소의 의미가 점점 특수성을 잃어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 변화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반화는 Bybee & Pagliuca(1985)에서의 지적대로 문법화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의미의 특수성이 적을수록 그 해당 어휘소가 쓰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이 쓰이는 분포가 넓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 둘째는 그 어휘소의 의미 자질이 특수 자질들이 적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어휘소의 기능이 다른 어휘소의 기능보다 더 일반적이 된다가나 일반성이 높아진다고 할 때에는 그 어휘소의 의미는 감소되고 그 기능은 증가되는 이중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법화에 있어서 의미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Givón(1973), Fleischman(1982) 등을 위시하여 많은 연구에서 주장된 바 있는데 Bybee & Pagliuca(1985)에서는 일반화를 문법화에 동반되는 단순한 부수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문법화가 일어나기 위한 예비단계에서 필수적인 과정으

로 보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문법소의 의미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소는 이러한 추상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 먼저 의미의 일반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의미 일반화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것은 영어의 조동사 *can*과 *may*에 관한 것이다. 다음의 예는 Bybee(1988)에 소개된 *can*의 경우이다.

(36) *can*의 의미 일반화

- i. mental ability: mental enabling conditions exist in an agent for the completion of the predicate situation
- ii. general ability: enabling conditions exist in an agent for the completion of the predicate situation
- iii. root possibility: enabling conditions exist for the completion of the predicate situation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n*은 원래 *read, spell, paint* 등과 같은 정신 능력에 중점을 두는 단어들과만 함께 쓰이다가 점차 *sew, cook, build, plant* 등과 같이 정신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을 포괄하는 단어들과 함께 쓰이게 되어 그 쓰임이 확대되었다. 그 후 행동주의 일반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뀌면서 결국 *swim, lift* 등과 같이 정신적인 능력보다는 신체적인 능력에 중점을 두는 단어들과 공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후에 새로운 의미변화를 겪게 되는데, 즉 행동주의 기본적인 능력으로부터 사회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가능성으로 의미가 일반화된 것이다. 즉 가능성의 존재 위치가 [행동주의 정신 > 행동주 > 전체 상황]으로 점차 변화해 간 것이다.

그러나 의미의 일반화가 실제로 문법화의 기제인지에 대하여는 학자마다의 이견이 있다. Bybee *et al.*(1994:289-290)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여 일반화가 실제 변화 기제인지 아니면 어떤 기제에 의해 일어난 변화를 단순히 의미 일반화라는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성하(1996)에서는 일반화는 그 자체로서 기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보고 일반화가 은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예를 다음과 같이 한국어 동사 '버리다'의 의미변화로 들고 있다.

(37) 한국어 '버리다'의 의미 일반화

- 제 1단계: lexical, 'throw away', physical removal, animate agent, physical object, from Location 1.
- 제 2단계: metaphorical, 'leave/abandon', physical removal, animate agent.
- 제 3단계: metaphorical, 'quit/stop', removal, animate agent.
- 제 4단계: metaphorical, 'disappear/spoil', removal.

위와 같은 의미 일반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예들에서 나타난다.

- (38) 제 1단계: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 제 2단계: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갔다.
- 제 3단계: 그런 나쁜 생각은 버려라.
- 제 4단계: 애를 안 때리면 버린다.

일반화가 문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종의 기제로서 생각될 수 있다는 근거는 언어습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어떤 문법적 자질을 해당 문법 범주 안에 모두 확대하여 쓰는 이른바 과잉일반화 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ing*형의 형태소를 배우게 된 아이는 이 형태소를 해당 문법 범주 즉 동사 범주에 모두 확산시켜서 쓰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화가 언어진략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그런 점에서는 일반화가 충분히 문법화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 5. 한국언어학과 문법화론

지금까지는 문법화의 원리와 기제들을 이론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한국언어학에서의 문법화론의 위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 5.1 한국언어학 속의 문법화론

최근 한국의 언어학계에서는 문법화론이 언어 현상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대 일어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문법화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래 문법화론이 비교역사언어학적 전통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의 언어 변화에 관한 업적들은 문법사 연구 학자들이나 역사언어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법화론이란 용어가 소개되기 이전에는 '허사화(虛辭化)'란 이름으로 연구들이 나왔다. 일찍이 유창돈(1962)에서 허사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현대 문법화론에서의 '탈색모형'과 매우 유사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주로 국어학자들에 의해 문법화현상에 해당하는 변화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문법화론의 본격적인 소개와 더불어 매우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의존명사와 종결어미의 문법화를 다룬 김태엽(1990, 1998), 조사들의 문법화를 다룬 이태영(1991, 1997), 의존명사와 보조동사들의 문법화를 다룬 권영환(1993, 1996), 후치사류의 문법화를 다룬 안주호(1994), 조동사, 보조용언의 문법화를 다룬 김미영(1995a,b), '가지다'의 문법화를 다룬 김정민(1995), 국어와 영어의 자료를 비교하며 문법화현상을 다룬 박승윤(1994), 복합서술어의 문법화를 다룬 Falsgraf & Park(1994), '-서'의 문법화를 다룬 Strauss(1997), '밖에'의 문법화를 다룬 박승윤(1997), 보조동사구문을 다룬 김명희(1996a), 문법형태소들의 소멸과 생성을 소개한 권재일(1996), 동사의 문법화를 다룬

이태영(1997), '-보고'의 문법화를 다룬 양인석(in press), 조건표지의 문법화를 다룬 구현정(1999), 연결사의 문법화를 다룬 이효상·박용예(1999), 의미의 일반성과 문법화 정도의 상관성을 연구한 이성하(1999) 등이 있다.

문법화론에 있어서 1990년대의 가장 큰 성과는 특히 여러 편의 훌륭한 박사학위논문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태영(1993[1998])에서는 동사의 문법화를, 리의도(1990[1989])에서는 연결어미의 문법화를, 이효상(1991)에서는 시상태체계를, 정재영(1996[1993])에서는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를, 그리고 고영진(1995)은 용언의 문법화를 다루었다. 김영옥(1995)은 문법형태의 일반적인 원리를 소개하였으며, 최동주(1995)는 시상태체계의 변화를, 김미영(1996)은 용언의 문법화를, 안주호(1996)는 명사의 문법화를, 이성하(1996)에서는 존재동사, 행위동사, 직시동사의 문법화를, 오상석(1998)에서는 보조사들의 문법화를 다루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한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소개로는 손호민·손성옥(1996)이 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문법화 이론에 대한 소개로는 1996년 담화인지언어학회에서 구현정(1996), 김명희(1996b) 두 학자에 의해 Hopper & Traugott(1993)의 강독이 있었으며, 한국어언어학회에서 이효상(1997)의 문법화론 특강이 있었다. 또한 문법화론을 소개한 저서나 논문으로는 허재영(1997), 임지룡(1997), 이성하(1998) 등이 있으며, 국제 한국어 학회나 서울 국제 언어학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문법화론의 틀에서 한국어를 분석한 논문들이 소개되고 있다.

## 5.2 앞으로의 연구 방향

언어학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현상의 관찰이나 기술을 넘어 현상의 과정과 원인 즉 '어떻게'와 '왜'를 밝히는 데 있다. 한국 언어학계에서는 현상의 기술 차원에서는 그 동안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지만 설명력의 면에서는 매우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내 언어학계에서의 많은 연구들이 현상 기술의 차원에 머무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론의 설명력에 관심을 가진 학문적 이론들이 잘 소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론들에 의한 현상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어는 언어유형론상으로 교착어에 속하므로, 문법 범주를 구성하는 기능을 대부분 조사와 어미가 담당하고 있다. 조사와 어미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겪기 이전의 통사적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의 문법화론의 관심은 주로 조사와 어미로 집중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소들의 연구가 많이 기대된다.

또한 언어의 변화는 주로 대화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담화를 중심으로 한 언어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언어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어의 본질을 살피는 것이며 언어의 본질은 인간의 인지에 있으며 이러한 인지작용은 담화내에서 화자들이 어떠한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이러한 인지적 전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언어변화이기 때문이다.

## 6. 결론

이 글에서는 지난 2-30여 년 동안 급격한 속도로 언어학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 새로운 이론틀인 문법화론을 소개하고 한국어언어학계에서 문법화의 시각에서의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문법화론은 공시와 통시를 통틀어서 범시적인 시각으로 언어자료를 분석하며 개별언어의 분석을 범언어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에 비추어 본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이론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어의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공시적 분석에서도 통시적 현상을 고려하고 통시적 분석에서도 공시적 현상들을 고려하기 위해 문법화적 시각에서 언어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국어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각 시대별의 공시적 분석들을 통시적으로 꿰어내고 이 전체적인 범시적 자료를 문법화의 원리와 기제들로서 해석해내는 것은 그 동안의 학문적 업적들을 거시적으로 종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동안의 학술 연구들을 문법화의 원리와 기제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범언어적 타당성과 한국어의 언어특정적 특질들이 밝혀질 것이며 결국 이러한 ‘재해석적 연구’들은 인간인지의 보편성 또는 개별성의 한계를 확인해내는 성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진. 1995. 국어 풀이씨의 문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현정. 1996. “Hopper &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강독”. 한국 담화인지언어학회 특강.
- 구현정. 1999. ⇨ H.J. Koo 1999.
- 권영환. 1993. “도움풀이씨의 문법화,” 부산한글 12. 한글학회 부산지회.
- 권영환. 1996. “매인이름씨 구성의 씨끝되기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6. 우리말연구회.
- 권재일. 1996. “문법 형태소의 소멸과 생성,” 한국어 토씨외 씨끝의 연구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김기혁. 1995. 국어 문법 연구 - 형태·통어론 -.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김명희. 1996a. “문법화의 틀에서 보는 보조동사구문,” 담화와 인지 2. 담화인지언어학회.
- 김명희. 1996b. “Hopper &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강독”. 한국 담화인지언어학회 특강.
- 김미영. 1996. 국어 용언의 접어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화. 1990. 현대국어의 상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김영욱. 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김정민. 1995. “가지고/갖고’의 문법형태소화,” 국어학회 제 22회 국어학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
- 김태엽. 1990. “의존명사 ‘것’의 문법화와 문법 변화,” 대구어문논총 8. 대구어문학회.
- 김태엽. 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 리의도. 1989.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리의도. 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역사. 서울: 어문각.
- 박승윤. 1994. “문법화 현상 -국어와 영어에서의 재범주화,” 인문과학 24.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승윤. 1997. “‘밖에’의 문법화 현상,”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 손호민·손성욱. 1996. ⇨ H.M. Sohn & S.S. Sohn 1996.
- 안주호. 1994. “동사에서 파생된 이른바 ‘후치사류’의 문법화 연구,” 말 1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안주호. 1996.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인식. (in press) ⇨ I.S. Yang (in press)
- 오상식. 1998. ⇨ S.S. Oh 1998.
- 유창돈. 1962. “허사화 고구,” 인문과학 7. 연세대학교.
- 이성하. 1996. ⇨ S. Rhee 1996.
-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하. 1999. ⇨ S. Rhee 1996.
- 이태영. 1991. “근대국어 {-
- 이태영. 1997. “근대국어 {-띄서}, {-겨서}의 변천과정 재론,” 주시경학보 8. 주시경학회.
- 이태영. 1993 [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이효상. 1991. ⇨ H. Lee 1991.
- 이효상. 1997. “문법화와 범시적 언어연구,” 한국언어학회 '97 겨울연구회 특강.
- 이효상·박용예. 1999. ⇨ H.S. Lee & Y.Y. Park 1999.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정재영. 1996 [1993]. 의존명사 ‘드’의 문법화. 서울: 태학사.
- 최동주. 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재영. 1997. “우리말 문법화 연구의 흐름,” 한말연구 3. 한말연구학회.
- Andersen, John M. 1973. *An Essay Concerning Aspect: Some Considerations of a General Character Arising from the Abbé Darrigol's Analysis of the Basque Verb*. The Hague/Paris: Mouton.
- Anttila.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 Arun. 1992. "Explicator Compound Verb," *International Journal of Dravidian Linguistics*. 21.1: 99-112.
- Bybee, Joan L. 1988. "The Diachronic Dimension in Explanations," in John A. Hawkins, ed.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350-379.

Oxford: Basil Blackwell.

- Bybee, Joan L., & William Pagliuca. 1985. "Cross Linguistic Comparison and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Meaning," in Jacek Fisiak, ed. *Historical Semantics, Historical Word Formation*. 59-83. Berlin: Mouton de Gruyter.
-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 Revere D. Perkins.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udi, Ulrike and Bernd Heine. 1986. "On the Metaphorical Base of Grammar," *Studies in Language* 10: 297-335.
- Dahl, Östen. 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Oxford: Blackwell.
- Dik, Simon C. 1978. *Functional Grammar*. Amsterdam/New York/Oxford: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Falsgraf, & Insun Park. 1994. "Synchronic and Diachronic Aspect of Complex Predicates in Korean and Japanese," in Noriko Akatsuka 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4. 221-237. Stanford: Stanford Linguistics Association, CSLI Publications.
- Faltz, Leonard M. 1989. "A Role for Inference in Meaning Change," *Studies in Language* 13, 317-331.
- Fleischman, Suzanne. 1982. *The Future in Thought and Language: Diachronic Evidence from Ro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ón, Talmy. 1973. "The Time-Axis Phenomenon," *Language* 49.4, 890-925.
- Givón, Talmy. 1991. "The Evolution of Dependent Clause Morpho-syntax in Biblical Hebrew," in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2. 257-310.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emeyer. 1991a.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emeyer. 1991b. "From cognition to grammar," in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1: 149-187.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eine, Bernd, & Mechthild Reh. 1984. *Grammaticalization and Reanalysis in African Languages*. Hamburg: Helmut Buske.
- Hopper, Paul J.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1: 17-35.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opper, Paul J., & Elizabeth Closs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önig, Ekkehard. 1988. "Concessive Connectives and Concessive Sentences: Cross-Linguistic Regularities and Pragmatic Principles," in John A. Hawkins, ed.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145-166. Oxford: Basil Blackwell.
- Koo, Hyun Jung. 1999. "Grammaticalization of conditionals in Korean," Paper presented in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nguages of Far East, South-East Asia and West Africa, Sep. 8-10, 1999.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St. Petersburg, Russia.
- Kuryłowicz, Jerzy. 1975 [196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Eugenio Coseriu, ed. *Esquisses Linguistiques II*. 38-54. Munich: Fink.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onald W. 1977. "Syntactic Reanalysis,"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57-139. New York: Academic Press.
- Lee, Hyo Sang. 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Lee, Hyo Sang & Yong-Yae Park. 1999. "Grammaticalization of the Korean connective *-nunte/(u)nte*: a case of grammaticalization of figure-ground relation," Paper presented at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Conference, June 16-19, 1999. Potsdam, Germany.
- Lehmann, Christian. 1991. "Grammaticalization and Related Changes in Contemporary German," in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2. 493-535.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Lehmann, Winfred. 1963.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Lichtenberk, Frantisek. 1991. "Semantic Change and Heterosemy in Grammaticalization," *Language* 67.3, 475-509.
- Marchese, Lynell. 1986. *Tense/Aspect and the Development of Auxiliaries in Kru Languages*. Arlington: 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Matisoff, James. 1991. "Areal and Universal Dimensions of Grammatization in Lahu," in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2. 383-453.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Myhill, John. 1988. "The Grammaticalization of Auxiliaries: Spanish Clitic Climbing,"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4, 352-363.
- Newman, Paul, & Russel G. Schuh. 1974. "The Hausa aspect system,"

- Afroasiatic Linguistics*. 1.1: 1-39.
- Oh, Sang-suk. 1998. *A Syntactic and Semantic Study of Korean Auxiliaries: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Seoul: Hankuk Publisher.
- Rhee, Seongha. 1996.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The Development in Korean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eoul: Hankuk Publisher.
- Rhee, Seongha. 1999. "Semantic generality and grammaticalization in Korean," Paper presented in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nguages of Far East, South-East Asia and West Africa, Sep. 8-10, 1999.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St. Petersburg, Russia.
- Sohn, Ho-min and Sung-Ock Sohn. 1996. "Grammaticalization in Korean: A Field of Notaci (< No Touch)," Paper presented at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July 1996, Griffith University, Brisbane, Australia.
- Strauss, Susan. 1997. "A Cognitive Account of the Korean Morpheme *-se*: A Marker of Inclusiveness," in H. Sohn and Haig, eds. *Japanese/Korean Linguistics* 6.
- Sweetser, Eve Eliot.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5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lmy, Leonard. 1981. "Force Dynamic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Language and Mental Imagery Conference, May 1981,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erkeley, CA.
- Talmy, Leonard. 1988. "The Relation of Grammar to Cognition," in Brygida Rudzka-Ostyn, 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165-205. Amsterdam: John Benjamins.
- Taylor, John R.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Traugott, Elizabeth Closs. 1980. "Meaning-Change in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Markers," *Language Science* 2, 44-61.
- Traugott, Elizabeth Closs. 1989. "On the Rise of Epistemic Meanings in English: An Example of Subjectification in Semantic Change," *Language* 65, 31-55.
- Traugott, Elizabeth Closs, & Ekkehard König. 1991.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1: 189-218.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Yang, In-suk. in press. "The Emerging Particle POKO in Korean: A Grammaticalization," to appear in *Grammatical Analysis of*

*Austronesian and Other Languages: Studies in Honor of Stanley Starosta.* Hawaii: University Press of Hawaii.

이성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130-791  
E-mail: srhee@maincc.hufs.ac.kr  
전화: +82-2-961-4797  
Fax: +82-2-959-4581